전남도, 경기도와 병상나눔…“코로나 위기 함께 극복할 때”

지난 3월 대구 이어 11일 경기도 경증환자 6명 목포시의료원 이송 치료

전남도와 경기도가 코로나 19, 3차 유행 국면에서 병상을 나누며 위기 극복 의지를 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 격상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경기지역의 코로나 19 환자 6명을 목포시의료원에서 돌보며 위기 국면에서 상생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시의료원에는 지난 11일부터 경기지역 코로나 19 확진자 6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증 환자들로 이들은 모두 목포시요양원 전원, 치료에 동의한 경기도 주민이다.

목포시의료원은 전남도립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과 함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 19 확진자 치료의 최일선에 있다. 12일 기준, 전체 병상 109개 가운데 광주 시민 4명, 경기 주민 6명, 전남 주민 20명 등 30명이 사용하고 있다. 잔여 병상은 79개다.

전남과 경기지역과의 병상 나눔은 지난 3월 대구에 이어 2번째다. 지난 3월 대구에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지자 지역 병원 배정을 받지 못한 환자 30명을 순천의료원에서 치료한 뒤 가족품으로 돌려보냈다. 대구, 경기 사례와는 맥락이 다소 다르지만, 대학병원(전남대·조선대)이 없는 전남은 중증 환자의 경우 광주에서, 경증 환자는 전남에서 치료하는 병상 나눔을 줄곧 이어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남과 경기의 병상 나눔 현장인 목포시의료원을 방문, 격려했다. 지난 11일 현대삼호중공업의 LNG 추진 외항 대형 벌크선 인도식 참석차 전남을 방문한 정 총리는 목포시의료원을 찾아 “목포시의료원은 권역별 공동대응 체계에 따라 이웃 광주 지역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 코로나 19 확산세가 심각한 경기 지역의 환자도 새롭게 받아 치료하기로 하는 등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정 총리는 또한 “목포시의료원은 기초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앞으로도 코로나 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병상 나눔과 별개로 호남권 생활치료센터가 설치된 나주 한전 KPS 인재개발원에는 광주 시민 14명, 전북 주민 10명, 전남 도민 7명 등 32명의 경증 코로나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의 경우 확진자 발생 규모가 안정세를 보이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비상 국면이다. 환자를 돌보는 데 지역을 가릴 형편이 아니다”며 “ 경기지역 환자 6명을 성심껏 치료해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코로나 19 확진자 폭증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전국 광역단체에 병상 나눔을 요청했지만, 전남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환자를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코로나 3차 유행에 따른 병상 부족과 관련, 민간시설에 대한 첫 긴급동원 조치도 이날 착수했다. 관련법에 따라 수원 소재는 경기대학교에 ‘생활치료센터 지정 알림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기숙사 일부를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LNG(액화천연가스) 추진 외항선 ‘HL 에코호’와 ‘HL 그린호’의 명명식이 11일 오전 영암군 삼호읍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열렸다. 정세균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포스코 장인화 사장, 에이치라인 서명득 대표 등 참석자들이 명명을 축하하고 알리는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현대삼호중, 세계 최초 ‘LNG 추진 외항 벌크선’ 명명·인도식

‘HL 에코호’ ‘HL 그린호’…‘친환경 선박산업 메카 전남’ 힘찬 도약

세계 최초 18만t급 LNG 추진 외항 대형 벌크선 2척이 11일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명명식을 갖고 해운사로 인도됐다. 이날 명명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남지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서명득 에이치라인해운 사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와 김형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명명식은 선박에 이름을 붙여주는 전통행사로, 국내 선사인 에이치라인해운이 지난 2018년 10월 친환경 선박 2척을 발주해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한 이 벌크선은 ‘HL 에코호’와 ‘HL 그린호’로 각각 새이름을 얻었다. 이번 선박은 정부의 ‘친환경 선박전환 지원사업’으로 96억원(적당 48억원)을 지원받아 건조됐으며, 선체의 강재와 연료탱크에 쓰인 특수강(9% 니켈강) 모두 포스코에서 공급받아 제작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남의 대표 조선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9월 초대형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건조한 바 있으며, 중국보다 7개월 늦게 수주하고도 1개월 앞서 인도해 이 분야에서도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황산화물 배출량을 3.5%에서 0.5%로 낮춰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국제선사의 친환경 선박 건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 따라 현대삼호중공업과 같은 대형 조선사가 글로벌 선박시장에서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친환경 선박용 핵심 기자재 기술의 국산화와 생산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전남도는 지난 10월 LNG 저장탱크 국산화를 위해 대형 조선 3사와 한국기계연구원, 목포대학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내년부터 260억 원을 투자해 대불산업단지에 LNG극저온 단열시스템 실증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선박 산업 육성을 위해 목포 남항을 중심으로 ‘연안선박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친환경 조선해양 생산기술 공유플랫폼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기술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곳 영암은 2년전 조선업 불황으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지역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에코호’와 ‘그린호’의 우렁찬 뱃고동 소리가 지역경제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친환경 선박산업의 메카를 꿈꾸는 전남의 힘찬 도전은 지역균형 뉴딜과 맥을 같이 한다”며 “LNG선 등 친환경 선박으로 전남이 중심이 돼 조선산업이 재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코로나 확산세 꺾지 못하면 3단계 불가피”

문 대통령, 중대본 회의 직접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중대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격상을)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3단계 격상으로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며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으로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취하는 ‘마지막 카드’로,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게 되며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는 물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30명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역대 최다기록을 경신하자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지난 2월 23일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위기”, “절체절명의 시간”, “실로 엄중하고 비상한 시기”라고 진단하며 “이제 K방역의 성패를 걸고 총력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방역 역량을 최대한 가동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 “신속하고 광범위한 검사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감염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고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확산을 빠르게 억제하는 근원적 방법”이라며 역학조사 지원인력 긴급 투입,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 검사량 확대 등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의료기관과 기업이 의료진 생활치료센터를 지원해 준 데 감사의 뜻을 표한 뒤 더 많은 참여를 요청하면서 “정부는 그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되기 전까지 마지막 고비”라면서 “그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가장 강한 백신과 치료제”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한 상황인 만큼 특히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며 “강화된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일상적 만남과 활동을 잠시 멈춰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전남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사업 ‘전국 최다’

여수 참문어, 무안·함평 낙지 선정…7개소 중 3개소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신규대상지 공모에서 전국 7개소 중 최다인 3개소를 차지했다.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수산자원회복이 필요한 품종의 생리·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서식환경 개선 및 자원 가입유도로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거점 마련을 위한 사업이다.

선정 지역 및 품종으로 여수시는 참문어가, 무안군과 함평군은 낙지가 각각 선정돼 수산자원 조성과 서식기반 구축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유도하게 된다.

이들 지역에는 내년부터 5년간 매년 26억원씩 총 130억원(국비 65억원, 지방비 6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시·군별로 여수시는 50억원, 무안군과 함평군이 각각 40억원 등이다.

도내 참문어 주생산지인 여수시는 최근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인해 자원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참문어의 산란·서식기반 조성 및 방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원량 회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무안군과 함평군은 비교우위인 갯벌자원을 활용해 갯벌 산란장 조성과 낙지 교접 이식, 어미 낙지 방류, 먹이생물(칠게) 조성, 불법어업 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어업인 주도의 지속적인 낙지자원 이용·관리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최정기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연근해 자원회복을 위해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서식기반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며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품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다가구 및 주택용지 ※ 주거 2종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종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홈플러스 길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요?

- 2020년 3월 25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
-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사망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과 법규준수 잊지 마세요.”

KoROAD 도로교통공단

위해화장품 회수

「화장품법」 제5조의2에 따라 아래의 화장품을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미엘 퓨어민트, 미엘클래식, 앙쥬르45물티슈 앙쥬르 실키 물티슈

나. 제조번호 : 미엘퓨어민트(20.10.08.299.G1)
미엘클래식(20.10.06.599.G1)
앙쥬르45물티슈(20.10.06.196.G1)
앙쥬르실키물티슈(20.10.09.130.G1)

다.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 : 1년

라. 회수 사유 : 상기 제품(제조번호) 일부에서 미생물기준 한도 초과

마. 회수 방법 : 방문,택배

바. 회수 영업자 : (주)지크린텍

사. 영업자 주소 : 전남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102

아. 연락처 : 061-373-5118

자. 그 밖의 사항 : 위해화장품 회수 관련 협조 요청

1) 해당 회수화장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화장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26-1920 • 신 안 222-8171 • 용 봉 433-1503	• 문 흥 266-1960 • 양 산 571-7658 • 우 산 433-1503	• 북광주 525-3761 • 오 치 266-7601
동 구	• 남 광 675-5530 • 충 앙 222-9054	• 동 명 222-9054 • 충 장 222-8171	• 동 부 225-6001
남 구	• 남 부 675-5530 • 송 하 675-6605	• 백 운 651-1833 • 진 월 671-7276	• 봉 선 675-5530
서 구	• 광 천 382-5788 • 운 천 376-7153 • 화 정 369-1625	• 상 무 372-2353 • 치 평 376-6511	• 서광주 369-1625 • 풍 암 603-0311
광산구	• 운 남 952-1687 • 하 남 955-0451	• 월 곡 959-1920 • 광 산 944-0444	• 첨 단 973-2900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경진(721006-XXXXXXX)
• **최후주소** : 목포시 비파로 62 (상동)
• **등록기준지** : 목포시 용당국민로8번길 4-6

피상속인 망 김경진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0느단456호로 신청하여 2020년 12월 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2월 14일

• **상속인** : 1. 김고은(690318-XXXXXXX)
광주 남구 서문대로 780, 111동 403호 (주월동, 제석산호반힐하임)
2. 김선자(591006-XXXXXXX)
전남 무안군 일로읍 오룡중앙동로 65 202동 1403호(방월리, 오룡에듀포레푸르지오)
3. 김선희(610302-XXXXXXX)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2번길 10 303동 802호(남악리, 근화베아체비올레)

• **신고기간** : 2020. 12. 14. ~ 2021. 2. 22.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 김고은의 주소

해산 및 채권 제출공고(2차)

당회사는 2020년 11월 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하고 2020년 11월 9일 자로 해산등기를 완료하여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중에 있사오니 당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천궁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해안로 81
청산인 진수언

光州日報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산행안내

12월15일(화)

▲광주 가고파트레킹 12월15일(화) 변산 마실길 솔섬지질명소(송념 점심제공), 진월동식자재마트앞 07:20, 월드컵북문 뼈통건너편 07:30, 한국병원앞 07:40, 교원공제앞 07:50, 문예회관후문 시내버스승장 08:00 ※ 다음카페 광주 가고파트레킹 ☎ 010 6294 2678, 010 3821 9090

12월19일(토)

▲광주금당산악회 12월19일(토) 부안 변산 마실길 4~8코스(송년 점심제공), 봉선동롯데마트앞 07:10, 진월동식자재마트앞 07:20, 염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정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8: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